

## 화해

김 영 미

얼마나 많은 씨앗을 배었기에  
하루도 쉬지 않고 내린다 사십오일 동안이나  
하얗게 뿌려지는 가로등 아래서  
부딪치며 둥글게 퍼지는 꽃의 얼룩  
유리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

어저께 그저께도 잠 못 든 것은  
폭죽이 터지고  
우산도 없이 산 꿩이 돌길을 걷고  
비를 맞으며 하늘을 날아야 하는 잠자리같이  
발가벗겨진 대로 나뭇굴고 있다  
젖은 숨 같은 날개 말릴 날 오겠지

얼마 만인가  
하늘이 금이빨을 내 보이고 있다